

통일공업, 채무조정안 가결 “숨통”

중소기업 공동워크아웃 1호기업 자금난 해소 ... 12억원 신규대출 지원

산업은행은 9월3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워크아웃 1호 기업으로 지정된 통일공업의 채무조정안이 채권은행협의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안에 따르면, 통일공업의 원금상환은 2007년까지 유예되고 총 차입금의 60%에 이르는 무담보채권은 연 1.0%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은 통일공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영자금 12억원을 신규로 대출해주는 등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용 합성수지 내장재 등을 생산하고 있는 통일공업은 원자재 가격상승과 결제조건 악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6월29일 채권은행협의회에서 중소기업 공동워크아웃 1호 기업으로 선정됐다.

<화학저널 2004/09/06>